

어떤 회로를 배선할 것인가

우리의 뇌의 상태는 우리가 우리의 심리적 삶을 행동으로 외재화하려는가 아니면 순수한 인식으로 내재화하려는가에 따라, 우리의 정신적 상태들을 더 많이 또는 더 적게 포함한다.

따라서 결국 정신적 삶의 다양한 기조(ton)들이 있으며, 우리의 심리적 삶은 다양한 높이에서, 삶에 대한 우리의 주의의 정도에 따라, 행동에 때로는 더 가까이, 때로는 더 멀리서 진행될 수 있다. 이 책의 지도적인 이념들 중의 하나가, 즉 우리의 작업에 출발점의 구실을 하는 이념이 바로 거기에 있다. 사람들이 보통 심리적 상태에서 가장 복잡하다고 간주하는 것이, 우리의 관점에서는 우리 인격성 전체의 가장 커다란 확장으로 보인다. 우리의 인격성은 정상적으로는 행동에 의해서 조여져 있다가, 그것을 압축하는 조임쇠가 풀려지는 그만큼 더 확장되며, 언제나 불가분인 채로 그만큼 더 넓은 표면 위로 펼쳐진다. (29-30쪽)

암송을 준비하다가 위의 문구가 도드라져 나에게 다가왔다. 문구들을 외울수록 난 궁금해졌다. 이 책의 ‘지도적인 이념’은 무엇일까?, ‘인격성 전체의 가장 커다란 확장’이란 무엇일까? 베르그손은 서론에서 정신의 실재성과, 물질의 실재성을 주장하며 그 둘의 교차점에 기억이 있다고 했다. 기억이 이 이야기를 풀어 나가는 중요한 키워드라 생각되었다. 나는 우리 집 고양이들의 행동과 씨앗문장을 분석해보며 기억과 행동의 관계, 정신과 물질의 관계를 찾아보고자 한다. 시로, 꼬맹이, 일생이, 멸치. 이들이 이 에세이의 주인공인 우리 집 네 마리 고양이들이다.

우리는 부분으로 존재한다

집고양이인 이들의 우주는 우리 집 전체와 창문 밖으로 보이는 바깥의 풍경일 것이다. 그 우주 속에 물질들을 이미지들의 총체라고 정의한다. 이들과 나 또한 이미지이며 이미지의 총체인 우주 속에 부분으로 존재한다. 네 마리 고양이들의 현재는 행동으로 표현된다. 행동의 기초를 제공하는 것은 과거의 기억이다. 그들의 기억은 집 안에 있는 수많은 이미지들을 지각하고 그 지각이 신체를 통해 행동으로 나아가는 감각-운동으로부터 형성되는 것일 것이다. 따라서 현재는 감각인 동시에 운동이고 그리고 곧 과거가 된다. 그런 과거는 두 가지 형태로 존속한다. 하나는 습관처럼 신체에 어떤 태도를 만들게 하는 신체의 기억, 습관-기억이다. 다른 하나는 매 번의 순간순간이 기억되는 과거 한순간의 기억, 부분기억, 이미지-기억이다. 두 번째 기억은 첫 번째 기억의 선택을 조명하기 위해 앞에서거나 뒤에선 이미지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네 마리 모두 앞발을 만지는 걸 싫어하고, 똥을 싸면 캐발랄해지면서 우다다다를 하는 걸 보면 과거 이전의 어떤 선형적인 과거가 신체에 새겨져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같다. 그러나 대체로 네 마리들의 행동이 조금씩 다를 걸로 보아 각자의 지각레이더망에 걸러지는 이미지들은 제각각인 것은 확실하다. 그런 이미지들은 과거기억의 이미지들에 대비하여 식별하고 행동으로 나아간다. 우선 첫 번째 식별은 순간적인 식별인데 이미지에 대한 기억들을 개입시키지 않고도 지각되는 신체만이 할 수 있는 신체의 자동기제이다. 신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습관-기억과 자동적인 식별은 야생의 습성이 더 많이 남아 있는 고양이들에게 더욱 잘 작동되는 것 같다. 네 마리 고양이들은 낮선 감각이미지가 들어올 때 여지없이 그 어느 때보다도 민첩하게 어디론가 숨어버린다. 모든 유기체는 매번의 상황에 관련된 기억들을 얼마나 신속하게 불러내는가가 생존에 유불리를 좌우했었기 때문이고 우리는 그렇게 진화를 해 와서 그

럴 것이다. 그렇지만 고양이들은 아직도 신체의 자동기제에 영향을 더 많이 받는 야생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 듯하다.

반면 그런 신체적인 식별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미지-기억들이 현재적 지각에 규칙적으로 결합하는 주의적 식별이 두 번째 식별이다. 이 식별은 대상에 대해 모든 세부사항들이 반사할 때까지 무한히 팽창할 수 있다. 베르그손은 개의 예를 들며 동물에게도 과거의 모호한 이미지들은 아마 현재적 지각을 넘칠 것이라 했다. 그러나 그 식별은 사유보다는 오히려 체험되어 기계적으로 신체에 의해 채택된 어떤 특별한 태도로 식별하는 것이지 주의적 식별, 지적인 식별, 완전한 식별은 아니며 그러한 것은 인간만이 가능한 노력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나는 우리 집 꼬맹이를 보며 작은 의문이 든다. 꼬맹이는 내가 화장실에서 일을 볼 때 나에게 와 몸을 비비기를 좋아한다. 어느 날은 내가 휴지를 뜯었더니 세면대 위로 올라가 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닌가. 그 이후의 나의 행동이 세면대에 가서 손을 씻는 것이라는 걸 주의 깊게, 지적으로, 완전하게 사유한 다음 행동한 건 아닐까.^^;;

기억의 작동방식

베르그손은 이 책의 '지도적인 이념'을 설명하기 위해 거꾸로 선 원뿔 모형을 제시한다. 그 원뿔 자체는 축적된 기억들 전체, 원뿔의 밑면은 부동적인 과거, 꼭지점은 매 순간 나의 현재이며 또한 그것은 끊임없이 우주에 대한 나의 현실적 표상이 움직이는 평면에 접하고 있다. 꼭지점에 접한 신체는 평면의 일부로서 평면에 있는 현실적 대상들에서 지각된 이미지들을 행동으로 표현하여 외재화하던지 또는 순수한 인식으로 내재화하기 위해 원뿔의 한 자리로 보내어 처리한다. 그렇게 꼭지점은 기억이 행동으로 나아가는 접점이다. 거꾸로 선 원뿔의 아래 부분은 감각-운동적 지대인 현재이고, 원뿔의 밑면으로 올라갈수록 부동의 과거에 더 가까운 활동성이 없는 상상적 삶의 지대이다. 우리의 정신적 삶은 이 양극단에서 수없이 많은 왕복을 하는 다양한 기조(ton)들로, 삶에 대한 주의 정도에 따라 다양한 높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기서 기조는 원뿔의 각 단면을 뜻하고, 삶에 대한 주의를 이 원뿔 자체가 나타내는 감각과 운동의 응집력에 달려 있다.

이미지들에는 확실히 선호되는 이미지가 있는 것 같다. 시로가 선호하는 나의 배는 폭신폭신했던 이미지 일 것이다. 그래서 시로는 여집사의 배에 대한 이미지-기억을 다른 이미지들과 식별하여 원뿔의 어디쯤에서 꼭지점으로 내려 보내 나의 배에 뛰어오르는 행동으로 행동의 평면에 삽입한다. 네 마리 고양이들은 자신들의 현재적 지각에 대해 그들 각자의 기억원뿔 어딘가의 이미지-기억을 꺼내와 꼭지점으로 연결하는 행동의 회로들을 배선한다. 나는 이 지각(감각)-기억(의식)-행동의 회로가 '인격성 전체의 가장 커다란 확장'인 거 같고, 그것이 성격이라 생각된다. 베르그손은 기억원뿔기둥 전체의 높이가 우리의 비결정성, 즉 자유라고 한다. 나는 어떤 회로를 배선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정신적 삶, 심리적 삶인 것이다.

우리의 인격성은 평소에는 팽팽하게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신경계라는 조임쇠로 조여져 행동에 적합하도록 되어 있는 상태이다. 베르그손이 완벽하고 더할 나위 없이 탁월한 기억이라 한 이미지-기억은 우발적이면서 변덕스럽고, 획득된 기억 뒤에 숨어 그들에 미끄러져 잘 나타나지 않는다. 그 기억은 현재의 행동에 호출이 있을 때에만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니 행동에 의해 압축된 조임쇠가 풀려지는 그만큼 확장되는 더 넓은 표면이란 우발적 기억을 잡기 위해 현재적 행동으로부터 초연해 질 수 있어야 하고, 무용한 것에 가치를 부여할 줄 알아야 하고, 꿈꾸려고 해야만 펼쳐질 수 있는 그런 이미지-기억들의 표면이다. 나는 이것이 지속의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 같다.

아마도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 너무 유용한 결과만을 원하기에 팽팽하게 긴장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여기에 인간들은 동물들과 달리 신피질의 발달로 시간축이 더욱 연장되어 미래를 추상하게 되면서 미래의 일까지 앞당겨 걱정하며 살고 있다. 베르그손이 말한 지속은 가끔씩 신체적 평형을 교란시켜 긴장을 늦추고, 거기서부터 환상의 놀이들과 상상력의 작업-정신이 자연과 함께 취하는 자유들 속에 위치하려는 노력의 상태인 거 같다. 정화스님이 말씀하신 마음비움, 마음집중, 의식집중의 다른 이름인 듯하다. 지속의 흐름 속에서는 꽃에서 열매가 생겨나듯이 **행동은** 앞선 것들로부터 진보하는 특유한 진화에 의해 어떤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낼 수 있다.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고양이들의 오묘한 눈을 볼 때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상태에서 흘러가는 대로 시공간을 온전하게 지속하고 있다고 느껴진다. 나도 창밖을 바라보는 고양이들을 보며 나의 지속의 놀이터에서 시공간을 느껴본다.^^

물질과 정신의 통일

이것으로 베르그손이 말하고 싶은 ‘핵심적인 이념’은 물질과 정신은 실재론자들이나 관념론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극단적으로 대립하거나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닌 서로가 연결되어 서로의 실질들을 긴밀히 교환한다는 것이다. 이 긴밀한 교환은 공간적인 평면인 행동과 시간축의 기억이 교차하며 이루어진다. 그래서 베르그손은 공간의 용어들로 표현하는 가설에서 ‘**신체와 정신은 직각으로 절단된 두 철길과 같다**’고 하고 시간의 용어들로 표현하는 가설에서 ‘**철길들은 곡선을 따라 이어지고 따라서 한 길에서 다른 길로 서서히 넘어 간다**’(370쪽)라고 말한다. 우리의 정신적 삶은 물질과 정신, 신체와 기억의 서로 긴밀한 교환 속에서 균형 잡히고, 그럼으로 우리는 독립적인 존재로써 사물들의 필연적 리듬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미래로부터 더욱 자유로워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감히 꿈꾸려고 해보자!!